

1부 진리와 나

1. 군자의 삶은 가까이 있다 ----- 공자 <논어>

- 군자란 “좋은 사람이 좋아하고 나쁜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 克己復禮 :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라.

2. 우리는 하늘의 뜻을 실천한다 ----- 중용

- 파랑새는 어디 있을까
-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다. 파랑새는 가까이 있다.
- 사람과 멀리 떨어진 도는 도가 아니다.
-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 過猶不及
中庸 : 어느 쪽으로나 치우침이 없이 올바르며 변함이 없는 상태나 정도.
-----• ~을 지키다.
中 가운데 중; 가운데, 마음, 치우치지 아니하다
庸 쓸 용; 쓰다, 공(功), 써, -로써
- 실천의 힘
 -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지혜, 부와 명예를 사양할 수 있는 절제, 칼날을 밟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도 중용은 행하기 어려운 것이다.
 - 도를 행하는 일은 불가능하지 한다. 천재가 아니라도, 성인이 아닌 보통 사람일지라도 정성스럽게 노력하면 이를 수 있다.
- 본성은 하늘이 준 것이다.
- 우리는 하늘의 도를 실천한다.
 - <中庸>은 인간이 하늘과 하나 되는(天人合一) 새로운 경지를 제시했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본성을 깨달아 실천하면 중용의 덕을 획득할 수 있다. 중용의 덕은 인간 최고의 도덕적인 목표다. 그러한 목표에 도달한 사람이 곧 군자다.

3. 자연에서 배워라 ----- 老子 <道德經>

- 공자, 노자를 만나다.

- 발끝으로 서 있는자, 오래 설 수 없다.
- 노자는 자연의 순리를 이야기 한다. ”발끝으로 서 있는자, 오래 설 수 없고, 가랑이를 벌리고 황새처럼 걷는 자는 오래 걸을 수 없다.“
- 順理를 거스르는 것을 노자는 人爲라고 했다. 인위란 인간의 의지와 욕심에 의해 하게 되는 일체의 것이다.
- 노자의 사상을 ‘無爲自然’의 사상이라고 한다. ‘자연’이란 원래 있는 그대로의 상태라는 뜻이다. 노자는 ‘억지로 무엇을 하거나 만들지 말고 원래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살아가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 無爲自然 :
- ① 자연에 맡겨 덧없는 행동은 하지 않음.
- ② 사람의 힘을 들이지 않은 본디 그대로의 자연.

- 노자, 현실의 삶을 이야기 하다.
- 만족함을 알면 치욕을 당하지 않고 그침을 알면 위태롭지 않으니 가히 오래 갈 것이다.
- 하늘의 도, 자연의 순리는 차면 넘치고 모자라면 채워지는 것이다.

- 노자의 도, 우리의 도
- 인위와 가식을 배격하고 자연의 순리를 따르라! 이것이 노자의 가르침이다.
- 노자는 무엇을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기 전에 이전 상태, 즉 근원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한다. 거기에 진리가 있다. 그러면 근원은 무엇인가? 노자는 없음에서 있음이 생긴다고 말한다. 없음이 근원이라는 것이다. 그 없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노자는 마음으로부터 보라고 한다. 마음의 눈으로 보면 없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 성인은 하지 않음으로써 일을 하고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가르친다. 만물을 만들지만 자랑하지 않고 소유하지도 않는다. 했다고 자부하지 않고 공이 있어도 내세우지 않는다. 내세우지 않기에 사라지지 않는다.
- 학문은 날마다 보태고 도는 매일 덜어낸다. 덜고 또 덜어 무위에 이른다. 무위하지만 하지 않음이 없다. 천하를 다스릴 때 무위로 하라. 일을 꾸미면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

4. 절대적이고 고정적인 것은 없나니 ----- 용수 <중론>

죽음과 삶을 자유자재로 한 사람

양극단에 머물지 않았다

고유한 실체는 없다

용수(나가르주나)는 說一切有部와 브라만교에 맞서 空 사상을 설파했다.
우주 만물은 모두 緣起에 의해 생기고 없어진다. 그러므로 만물은 항상 변하여 잠시도 고정된 모습으로 머무르지 않는다. 모든 사물은 연기에 의하여 생겨나고 없어지므로 고정된 실체를 갖지 않는다.

불교, 대승의 길을 가다

- 중생구제를 최고의 목표로 했다.

5. 율타리 안에 매몰되지도 말고 벗어나지도 마라

----- 원효 <대승기신론소>

원효, 파괴하다

민중 불교를 개척하다

- 원효는 유학을 포기하고 귀족 불교와 다른 길을 걸었다. 왕족과 귀족 중심의 불교가 아닌 민중 불교를 개척하였다. 그것이 원효의 큰 깨달음이었다. 원효의 파격적 행동은 깨달음의 실천, 민중 불교의 실천이었다.

원효, 통찰하다

和諍의 思想

- 원효는 상대방을 말살하려 하지 않았다. 뜻이 다르면 적이 되는 세상에서 상대를 인정하고 화합을 이루고자 했다. 같은 것은 다른 것이고 다른 것은 같은 것이며, 같은 것 안에 다른 것이 있고 다른 것 안에 같은 것이 있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다

-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생활에 매몰되지도, 벗어나지도 않으면서 바르게 생각하면 근본적 진리, 즉 깨우침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민중 불교다.

6. 깨달음에 이르는 길 ----- <바가바드기타>

전쟁에서 대화가 시작되다

- ‘바가바드기타는’ ‘지존자의 노래’라는 뜻이다. 인도의 힌두교들이 아침저녁으로 낭송하는 경전이다.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유명한 인도의 성인 마하트마 간디는 영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바가바드기타>를 읽고 평생 이 책을 몸에 지니고 다니며 읽었다고 한다.

제사는 왜 지내나요

- 인도의 브라만교, 힌두교를 대표하는 경전으로 <베다>, <우파니샤드>, <바가바드기타>가 있다.
- 샹카라는 <우파니샤드>에 근거하여 불교의 나가르주나의 사상을 비판하였다. 샹카라는 나가르주나가 무지하여 진실을 잘못 파악했다고 비판했다. 우리가 보는 사물들은 거짓이다. 거짓된 사물을 보고 실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망상이다. 망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존재인 브라만을 알아야 한다. 또한 브라만이 우리 마음속의 진정한 주체인 아트만과 일치함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나는 이 세상의 좋은 향기다

- 만물은 신, 즉 브라만에게서 나왔다. 신은 만물의 본체다. 그러나 신은 만물 속에 있지 않고 만물이 신안에 있다. 신은 만물의 가장 순수한 형태이고 만물은 신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신은 만물과 하나다. 따라서 만물에서 신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주 만물의 본체를 알 수 있고, 따라서 절대적 진리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일상의 삶이 의미가 있다.

우리 안에 있는 두 본성의 싸움

- 그러나 신은 만물과 다르다. 신은 성스러운 특징을 가지므로 만물 너머에 있다. 그러므로 만물에서 신으로 나아가려면 비약해야 한다. 일상의 삶을 넘어서야 한다. 그러면 일상의 삶을 초월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다. 삶의 자세와 관련하여 <바가바드기타>는 헌신적인 삶을 강조한다.
- 크리슈나의 헌신적인 삶이란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모든 존재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며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고통과 기쁨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는 사람

2부 군자의 인간 탐구

7. 나는 천하를 바꿀 수 있다 ----- 大學

치수가 안 맞으면 못을 박을 수 없다

- <대학>의 '絜矩之道'는 목수가 곱자로 재듯 자신의 처지를 미루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뜻이다.
- 남을 다스리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을 다스려라.

나와 천하를 받드는 세 개의 기둥

- 대학의 도는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으며(明明德),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으며(親民), 지극한 선에 머무는 데(止於至善) 있다.

격물치지, 성의정심

- 格物致知, 誠意, 正心, 修身齊家治國平天下
- * 格物致知 : 실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지식을 완전하게 함<대학의 용어>.
- 格 바로잡을 격;바로잡다, 바루다, 겨루다, 대적하다, 치다, 때리다

다스리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을 다스려라

- 천하를 바꿀 사람이 되려면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 나는 리더가 될 수 있다. 리더의 덕목을 갖추면.

8. 우물에 빠진 아이를 보면 왜 구하고 싶어지는가 ----- 孟子

칼로 베를 자르다

- 孟母三遷之教

세상을 바꾸는 의지, 용기

- 맹자는 부조리한 현실에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을 경멸했다. 맹자의 용기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온 것이다.
- 맹자는 말했다. 浩然之氣는 하늘의 도와 정의에 뿌리를 둔 公明正大한 기운이다. 호연지기를 기르면 아무 거칠 것이 없이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게 된다.

당당하게! 당당하게!

-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그 다음이 나라이며 임금은 가장 가벼운 존재라고 했다. 민심을 잃은 것과 주는 임금이 아니라 도둑놈일 뿐이다. 백성의 마음을 얻으려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모아주고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다. 이것이 맹자가 말하는 ‘王道政治’다.

물고기를 버리고 곰발바닥을 취하리라

- 맹자도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에 삶 대신 義를 택한다. 죽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죽음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기에 차라리 죽음을 택한다. 그 선택은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김이다. 스스로가 존귀하기에 맹자는 스스로의 가치를 버리지 않는다.

우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

- 맹자의 四端 : 사람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네 가지 마음씨. 곧 인(仁)에서 우러나오는 측은지심(惻隱之心), 의(義)에서 우러나오는 수오지심(羞惡之心), 예(禮)에서 우러나오는 사양지심(辭讓之心), 지(智)에서 우러나오는 시비지심(是非之心)을 이룸. 자유지정(自有之情).
端 바를 단; 바르다, 곧다, 옳다, 바로잡다, 진실

9. 삶과 사상이 일치하다 ----- 정약용 <牧民心書>

탓물도 마르지 않았는데

큰 도둑은 그냥두고 좀도둑만 문죄하십니까

<목민심서>가 더 크게 울리는 이유

조선판 노블레스오블리주

10. 현실에서 인간의 의지를 구하라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 사람다움을 포기하는 순간 사람은 괴물이 된다. 순자는 우리에게 마음속 심연에 있는 괴물과 맞서 싸우라고 한다.

인간은 악하다. 그러나 의지가 있다

- 순자는 있는 현실을 그대로 관찰했다. 현상적으로 보면 인간은 분명 사악한 요소가 많다. 전국시대 같은 약육강식의 시대에는 악한 인간의 모습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순자가 강조한 것은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이었다.

인간의 본성이 바뀌는 방법

- 순자는 사람을 교화하는 방법으로 禮를 제시한다. 예는 사람을 악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욕망을 길들여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준다. 순자는 예를 통해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규제하고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더 나아가 '예의 정치'를 주장했다. 공자가 주장한 예는 사대부 이상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예였지만 순자의 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예였다. 이런 면에서 순자가 말하는 예의 정치는 공자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포괄적'이다.

동양의 순자,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

- 순자는 인간이 동물과 달리 집단을 이루고 사회를 구성하며, 그곳에서 제도, 즉 '禮'를 만들고 국가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 동물에 비해서 우월할 수 있는 이유가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여 생활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제자백가의 핵심을 섭취하다

- 공자와 맹자로 이어지는 전통 유학에서 하늘은 인격자다. 인간에게 본성을 부여하고 통치의 원리와 정통성을 부여해주는 존재다. 반면 순자는 인격자로서 하늘을 부인한다. 천재지변은 자연현상에 불과하다. 모든 것은 인간의 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하늘이 인간의 삶을 주재한다는 것은 미신에 불과하다.

11. 지켜지지 않는 원칙은 변칙일 뿐이다 ----- 한비자 <한비자>

시기심 때문에 죽다

- 韓非子は 일찍이 李斯와 함께 荀子の 문하에서 배웠다. 그때 이사는 자기가 한비자만 못하다고 스스로 인정했다고 한다. 이사가 한비자를 죽인 것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었다.

동양의 마키아벨리, 아니 그보다 더 뛰어난

- 전국시대 막바지에 한비자의 조국 한나라는 점차로 국력을 상실하여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비자의 상황 인식은 냉정할 수 밖에 없다. 위기에 처한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义的 정치', '예의 정치'를 주장할 수 없었다. 한비자의 사상은 이런 객관적인 조건에서 나왔다.

법을 엄격히 펴나가라

- 한비자는 나라를 강하게 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주체는 군주다. 그래서 한비자는 군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럼 군주는 무엇에 의지해야 하는가? 참담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어떤 원칙을 세워야 하는가? 한비자는 객관적이고 포괄

적인 법을 통치의 근거로 천명한다. 질서가 무너지고 자의적인 살인이 횡행하던 그 때 사회를 유지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방법은 법을 세우는 것이었다.

3부 세상의 배꼽

12.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周易

<周易>, 점치는 책인가?

- <周易>은 가장 오래된 점치는 책이다. 그러나 단순히 점만 보는 책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주역>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철학이 담겨 있다.

* 周易 : 중국 주(周)나라 때의 경서(經書)《천문·지리·인사·물상(物象)을 음양(陰陽) 변화의 원리에 따라 해명한 유교의 경전》. 역(易). 역경(易經).

周 두루 주; 두루, 골고루, 고루 미치다, 마음씨가 주의를 두루 미치다, 둘레, 주위
易 바꿀 역; 바꾸다, 고치다, 교환하다, 바뀌다, 새로워지다, 도마뱀

우리가 읽기 나름이다

- <주역>은 인간사를 성찰하는 철학적 사유다. 그런가 하면 “시초(점에 쓰이는 톱풀이나 대나무)의 수를 궁구하여 다가오는 사건의 성격을 아는 것을 점이라 하고, 변화를 완벽하게 아는 것을 일이라고 한다.

동양사상의 원류

- 정인지는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가 天地人삼재의 묘함이라고 썼다. '天地人'은 <주역계사전>에 쓰인 말이다.

- <주역>은 동양 사상의 보고다. <주역>을 읽으면 노자가 보인다. "음과 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이것이 도"라는 <주역>의 원리를 살짝 바꾸면 "뒤집어 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라는 <도덕경>의 내용이 된다.

13. 성리학의 바이블 ----- 주희 <근사록>

위대함과 좋음은 무엇이 다를까

- 기성의 체제 안에서 잘 만들어진, 잘 쓰인, 잘 다듬어진 것들을 우리는 좋다고 말한다. 그러나 시대를 집약하여 새로운 시대를 연 예술과 사상을 우리는 위대하다고 한다.
- <近思錄>은 주희가 친구인 여조검과 함께 앞선 학자들인 주돈이, 정호, 정이, 장재의 글에서 학문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편집한 책이다.

한시도 현실 세계를 떠날 수 없다

- 주희는방대한 철학체계인 성리학을 완성했다. 성리학은 불교나 도가로부터 유학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었다. 주희는 유학에 부족했던 철학을 발전시켰다. 유학이 국가의 통치 이념이 되면서 입신출세를 위한 학문이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유학자들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해석해 놓은 유학 경전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지루하고 따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인간의 삶과 죽음, 우주의 본질과 인간의 본성 등을 다루는 불교에 유학은 적수가 되지 못했다.
- 주희는 우주 만물은 氣로 이루어져다고 말한다. 인간 사회와 자연, 즉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 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기만 존재하는가? 주희는 기와는 다른 理도 역시 존재한다고 했다. 더욱이 이가 기를 낳는다고 하여 우주 만물의 근원은 이라고 했다. 주희는 이란 우주와 사회와 인간을 관통하는 근본 이치라고 말한다. 사람의 순수한 마음과 도리, 사회와 자연의 이상적 질서가 이다.
- 그런데 주희 철학의 의의는 이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기의 중요성을 밝힌 것이었다. 주희는 불교와 도교의 현실 인식에 반대한다. 현실 세계는 기로 이루어져 있어 허망하거나 헛되지 않다. 더욱이 현실 세계 안에는 이상적인 질서인 이가 있다. 우리는 단 한시도 현실 세계를 떠나 살아갈 수가 없다. 현실 세계가 어지러울수록 현실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주희는 <대학>의 ‘格物致知’를 높이 평가했다.

* 格物致知

실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지식을 완전하게 함《대학의 용어》.

성리학의 모태, 주돈이, 정호, 정이, 장재

- 정호는 “타고난 그대로를 성이라 한다. 성은 곧 기이며 기가 곧 성이다. 성을 기로 보느냐 이로 보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성을 누구나 타고난다는 점에서는 같다. 정호, 정이 형제는 누구나 태어나면서 받은 성을 깨닫기 위해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닦아야 한다고 했다. 주희는 이 수양론과 함께 정이가 말한 “성이 곧 이(性卽理)”라 이유가 여기에 있다.

*性即理 ; (철) 중국 송나라 때, 철학자 정이(程頤)가 제창하고 주자가 계승한 주자학의 근본 원리. 성(性)은 우주 만유의 존재 근원인 이(理)로서 만인에 내재하는 보편적인 인간성이 된다고 주장하였음.

<근사록>에서 시작하여 <근사록>으로

- <近思錄>은 집대성이다. 주희는 과거의 유학을 새로 모아 새로운 성리학을 열었다. 유학은 현실과 밀접했지만 철학적인 사유에서 맹점을 드러냈다. <근사록>의 의의는 이 두 가지 면에서 찾아진다. <근사록>을 통해 주희는 유학의 계통을 세운다. 즉 사상의 체계와 인물의 체계가 확립되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근사록>은 유학의 새로운 철학적 사유를 종합하고 심화시킬 계기를 마련했다. 즉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유학의 토대가 되는 길을 열었던 것이다.

14. 만물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가

----- 서경덕 <화담집>

벼슬을 하지 않는 이유

천기를 알다

- 이이는 서경덕과 이황을 비교하면서 서경덕은 스스로 깨친 사람이고 이황은 옛 학자의 글을 연구하여 깨친 사람이라고 했다.
- 서경덕은 스승을 두지 않고 혼자 공부하여 格物致知의 방법을 실천하여 天機 즉, 근본적인 질리를 알아냈다고 했다.

세상은 스스로 움직인다

- "太虛는 맑고 형체가 없다. 이를 일컬어 先天이라 한다. 태허의 크기는 끝이 없고 태허에 앞서는 시작도 없다. 그 맑고 고요한 태허가 氣의 근원이다. "태허는 선천이라 했다. 선천은 우주 만물이 탄생하기 이전 시기를 말한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생겨나기 이전의 상태가 태허이고, 그 태허가 곧 기라고 했다. 그러므로 기 이외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 이런 관점에서 주희에서 시작된 전통적 성리학과 다르다. 주희 역시 우주 만물은 기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기와 전혀다른 理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더욱이 이가 기를 낳는다고 했다. 그러므로 전통적 성리학의 입장에서 볼 때 우주 만물의 근원은 이다. 이에 대해 서경덕은 비판한다. "기 바깥에 이가 없다. 이는 기의

主宰다. 주재는 바깥에서 와서 하는 것이아니다. 주재한다 함은 기가 작용하는데 저절로 그렇게 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다. 이는 기보다 앞설 수 없다.“ 이는 기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가 운동하는 원리 또는 법칙일 뿐이다. 어찌 사물의 운동 법칙이 사물보다 먼저 존재할 수 있겠는가?

- 그러면 우주만물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서경덕은 기가 문득 도약하고 문득 열린다고 말한다.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한다. 기가 스스로 운동하여 우주 만물이 생겨났다.

부채를 부치면 바람이 생기는 이유

- 부채를 휘두르면 부채가 기를 치게 되고 기가 움직임을 받아 물결치듯 바람이 되는 것이다.
- 사람의 삶과 죽음은 음기와 양기가 모였다 흩어지는 것일 뿐이다.

15. 마음을 집중하여 공손하게 배워라 ----- 李滉 <聖學十圖>

집승우리에서 벗어나니 즐거움이 살아난다

- <성학십도>는 1568년 68세 때 벼슬에서 완전히 물러나며 선조에게 올린 글이다. 성인이 되기 위한 공부의 지침과 설계를 열 개의 그림에 담은 것으로, 이황의 학문적 고뇌와 성취를 담고 있다.

말세의 세상을 바꾸려면

- 이황은 자기 시대를 말세라고 보았다. 말세인 세상을 바꾸려면 학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황의 생각이었다.
- 이황은 성리학적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자 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황에 이르러서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정착했다고 할 수 있다. <성학십도>는 <태극도설>로부터 시작한다. <太極圖說>은 성리학을 완성한 주희가 그린 그림과 해설로서 <주역>에 나오는 ‘태극이 음과 양의 두 기를 낳고 두 기가 만물을 낳는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 이황은 이는 기와 별도의 존재이고 이가 기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황의 철학은 그의 이상주의를 반영한다. 말세인 세상에도 하늘의 뜻은 바뀌지 않듯이, 세상은 어지럽고 혼탁해도 이상은 엄연히 존재한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이상은 세상과 별도로 존재하므로 결코 다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이상이 존재하므로 세상은 바뀔 수 있다.

이황 철학의 탁월함

- 이황은 사단이 이의 발동, 즉 이가 움직이고 작용하여 생겨난다고 보았다. 칠정은 인간의 감정을 가리키는데 칠정은 기가 발동한 것이다. 반면에 제자인 기대승은 이가 움직이거나 작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이황과 제자 기대승간에 8년에 걸쳐 논쟁이 계속되었다. 이것이 유명한 ‘四端七情論’ 논쟁이다.

공부하는 방법

- <성학집도>의 결론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敬’이다. 경은 성현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며 자신을 닦는 방법이다. 주희는 자신을 닦는 修己의 방법으로 ‘敬’과 ‘格物致知’를 말했다.

16.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어찌 학문이라 ----- 이이 <聖學輯要>

공자와 부처 중 누가 성인입니까

- <성학집요>는 이이가 마흔 살에(1575년)지어 임금에게 올린 글이다. 이이는 이 책에서 유학 사서의 하나인 <대학>을 텍스트로 하여 옛 성현들의 글을 모으고 자신의 사상을 덧붙였다.

경장해야 한다

- 更張 : 시급히 오래된 법과 제도를 뜯어고치는 것
- 變通 : 때가 바뀌면 그때에 맞추어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

조선의 성리학을 세우다

- 이이는 이상적 질서가 현실과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이상적 세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이가 경장론과 변통론을 내세워 줄기차게 개혁을 주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3년간만 시행해보자

- 李珣는 조선의 개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일에 대해서

는 비타협적으로 싸웠다. 임금은 이이를 과격하다고 배척하였다. 이이는 두 차례에 걸쳐 탄핵을 당하기도 했다. 조정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하면서 이이에 대한 견제는 더욱 심해졌다. 이이는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양쪽을 타협시키려 애썼다. "선비가 분열하면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선비가 패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朋黨政治를 반대했다.

4부 마음과 세계

17. 마음 한 번 바꾸면 지옥도 극락이라 ----- 혜능 <육조단경>

육조대사

- 혜능은 마음 속에 있는 본성을 깨달으라고 한다. 혜능에 의해 중국 禪宗은 크게 확산되어 중국 전역의 민중 속에 뿌리내리게 되었다.

* 禪宗

(불) 참선으로 자신의 본성을 구명해서 성불함을 목표로 하는 종파. 중국 양나라 때 달마 대사가 중국에 전함. 우리나라에는 신라 중엽에 전해져 구산선문(九山禪門)이 성립됨. 선가(禪家). 선도(禪道).

-----• ~ 사원(寺院).

↔교종(敎宗).

깨달음으로 가는 길

- 문제의 본질은 마음이다.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문제의 근원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또한 해결책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모든 외부의 사물이 달라진다. 낮과 밤은 동일하게 사람에게 다가오지만 그것을 느끼는 사람의 감정은 제각각이다. 이런 이치를 깨달아 자신을 다듬고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본성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頓과 漸도 모두 진리다

- 혜능이 살던 시대 사람들은 수행 방법에 대해 논란을 벌였다. 깨끗한 마음의 상태를 중시하는 定과 지혜로움을 중시하는 慧의 논란이었다. 마음의 본성이 정이고 마음의 작용이 혜다. 그 둘은 따로 떨어질 수 없다. 그 둘을 함께 닦아야 진정한 수행이 이루어진다. 혜능은 또한 불교의 대표적인 논란인 돈과 점에 대해서도 정리했

다. 돈이란 깨달음이다. 점은 깨달음을 얻은 후 이를 굳건히 하기 위한 꾸준한 수양을 의미한다.

- 빨리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디게 깨달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깨달음의 내용’은 다르지 않다. 깨달는 것이 중요하지, 어떻게 깨닫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우바새여, 우바이여 이렇게 살라

- 혜능의 이야기는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 상식은 결국 우리가 지켜야할 보편적인 가치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닦지 않고 재물을 바친다. 그러나 많은 재물로도 자신의 내면을 가꿀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역시 마음이다. 스스로의 마음에서 답을 얻어야 한다. 속세에 살아 유혹이 많을수록 마음을 가다듬자.

깃발은 마음이 펄럭이게 했다

- 살면서 무엇이 다가오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하다. 똑같이 돈을 써도 누구는 기부를 하지만 누구는 낭비를 한다. 똑같은 시련이 와도 누구에겐 자신을 단련할 기회이지만 누구에겐 넘지 못할 패배의 벽이 된다. 마음 한 번 바꾸면 그렇게 달라진다.
- 바람에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을 보고 한 승려가 ”바람이 움직인다고“했다. 그러자 다른 승려가 ”그렇지 않다. 깃발이 움직인다.“고 했다. 혜능이 말했다. ”그것은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다. 바로 당신들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一切唯心造

18. 내 마음 안에 다 있소이다 ----- 왕양명 <전습록>

전수받아 익힌다

- 왕양명은 광범위한 독서와 사색을 통해 성리학과 다른 자기만의 유학을 세우게 되었다. 왕양명이 새롭게 세운 유학을 ‘陽明學’이라고 한다.

격물은 답이 아니다

- 성리학이 국가 이념이 되면서 학문상에 나쁜 성향이 생겼다. 성리학은 점점 입신출세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고, 학문을 한다는 것은 주희가 해석해 놓은 유교 경전을

암기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렸다. 성리학은 ‘생각하는 학문’에서 암기하는 과거 공부 ‘로 전락하면서 쇠퇴해갔다.

- 그래서 성리학에 대한 회의가 싹트기 시작했다. 뜻있는 많은 유학자들이 불교와 도가의 경전을 연구했다. 불교와 도가로 전향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교와 도가 사상을 통해 성리학을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양명학은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양명학은 태생적으로 성리학에 대한 비판이다.
- 우리가 바깥에 있는 사물을 아무리 연구해도 진리를 알 수 없다. 더욱이 결물치지에 따르면 사물이 없어지면 이치를 알 수 있는 길도 완전히 사라진다.
- 格物致知가 아니라면 어떻게 理致를 깨달을 수 있는가? 왕양명은 말한다. 우리의 마음이 곧 이치다. 진리를 바깥에서 구하여 하지 말고 마음 안에서 구하라. 이 점에서 양명학은 우리의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는 불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 왕양명은 자신의 주장을 정식화하여 ‘心 즉 理’라고 했다. 마음이 곧 이치라는 말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良知’다. 양지는 유학의 경전을 공부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전은 양지의 기록일 뿐이다. 경전은 내 마음의 기록에 지나지 않는다. 마음속에 양지가 있음을 알고 양지를 실현하면 된다. 이를 왕양명은 ‘致良知’라 했다.

그러면 어떻게 치양지를 할 것인가? 왕양명은 그 방법으로 ‘知行合一’을 제시했다.

사람은 평등하다

- 성리학에서도 ‘사람은 이와 기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평등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에 따라 사람의 높낮이가 달라진다고 하여 차등의 관점 또한 가지고 있다. 왕을 중심으로 하여 士農工商으로 이어지는 사회 국가적 질서를 이상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성리학은 차등의 관점을 내세웠다. 물론 왕양명이 왕 중심의 질서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왕양명의 평등의 관점에는 당시 부패한 고위 관료층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다.

19. 유학은 뿌리고 도가는 기르고 불교는 수확한다

----- 휴정 <선기귀감>

달걀을 거꾸로 쌓아내리다

- 崇儒抑佛을 국가 정책으로 내세운 조선은 불교를 억압했다. 조선 개국의 일등공신인 정도전은 <불씨잡변>에서 불교에 대한 반대 논리를 정식화 했다. 불교는 현실을 허망한 것으로 보고 속세를 떠나라고 함으로써 천륜을 어겼다는 것이다. 즉 집을 떠남으로써 부모님께 불효하고 사회를 떠남으로써 임금께 불충한다는 것이었다. 정

도전의 주장은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불교 비판의 중심적 논리가 되었다. 세종은 불교 종파를 선종과 교종으로 강제 통합했고 전국에 36개의 사찰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게 하였다. 또한 승려의 도성 출입을 금지시켰다. 성종 때는 도첩제도를 폐지하여 승려가 되는 길을 막아 버렸다. 불교는 대단히 위축되었고 승려들은 산속으로 숨어들어갔다.

- 고려시대에 사찰은 대토지를 소유했고 승려는 사치스러웠다. 이에 대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았지만 불교계 내에서는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백성의 신망을 잃자 정부의 대대적인 억불책에 맞설 수가 없었다.

박쥐, 병어리 염소, 지옥찌꺼기, 가사 입은 도둑

- 중종의 왕비인 문정왕후가 승려 보우를 등용하고 승과를 부활했다. 휴정은 승과에서 장원급제하여 주요한 승관직을 두루 거쳤다. 그러나 승관직이 승려의 본분이 아님을 깨닫고 모든 직을 버리고 지리산, 태백산, 오대산, 금강산을 거쳐 묘향산에 들어가 수행을 하며 제자들을 가르쳤다.
- 조선 정부의 억불책에 의해 불교가 쇠퇴하면서 무속 신앙과 결합한 사찰들이 생겨나고 번성했다. 그래서 이른바 ‘사이비 승려’가 늘어났다. 휴정은 <삼가귀감>에서 그들을 비판했다.

어느 것이 나의 모습인가

- 휴정은 禪과 敎의 갈등을 넘어서고자 했다. ”부처가 세 곳에서 마음을 전한 것이 선지가 되고, 한평생 말한 것이 교문이 되었다. 선은 부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의 말이다.“ 선과 교의 통합, 이것은 원효에서 지눌로 이어졌던 우리나라 불교의 전통이었고 휴정은 이 전통을 다시 되살리고자 했다.

20. 하늘에서 봐라, 차이가 없다 ----- 홍대용 <醫山問答>

유학이 잘못된 것인가

-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자기 시대의 정치와 사회를 비판하고자 했다면 홍대용의 <의산문답>은 사상을 빛나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 주희의 철학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斯文亂賊, 즉 교리를 어지럽힌 자라고 탄압하는 시대였다. 그래서 홍대용은 비판한다. ”중국에서는 성리학과 배치되는 양명학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에 대해 사문난적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홍대용은 일생을 두고 자유롭게 학문을 하고자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생

각의 일대 전환, 세계관의 일대 전환을 이루어냈다. 그 세계관의 전환을 집약해 놓은 책이 <의산문답>이다.

선비에게 집안일을 가르치자

- 홍대용은 古學과 아울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학문을 하겠다고 했다.

베이징에 다녀와서 생긴 일

- 조선은 청나라를 오랑캐의 나라라고 비하하고 명나라를 섬겼다. 한족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명나라는 이미 청나라에 의해 멸망한 지 오래되었다. 그럼에도 조선은 의리론을 내세워 없어진 나라인 명나라를 섬겼다. 華夷論의 폐해가 이렇게 컸다. 홍대용은 김종후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로부터 천하의 대세는 늘 바뀌어왔다. 세상이 바뀐뒤에 과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는 어렵다."라고 썼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없어진 명나라를 섬기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얘기다.

하늘에서 보면 사람과 동물은 똑같다

- 홍대용은 당대 성리학에 의한 이분법적 사고, 차등의 세계관을 넘어 상대주의와 평등의 세계관으로 생각의 전환을 이루었다. 물론 홍대용의 철학은 성리학의 xmd 내에서 이루어졌다. 성리학 자체를 폐기하는 일은 한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였다. 그러나 홍대용이 이룩한 생각의 전환은 근대적 철학을 예비하는 것이었다. 홍대용은 지동설을 주장하였다.

21. 유행을 추측하라 ----- 최한기 <氣學>

한양에서 공부만 하다

책 때문에 가세가 기울다

- 책이 없어 견문을 넓히지 못하고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것보다 굶주림이 낫다. 최한기는 책벌레였다.

성리학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 최한기는 理學을 배격하고 氣學을 하고자 했다. 기학은 형체가 있는 물체와 검증할 수 있는 사실을 근본으로 삼는 학문이다. 그래서 기학은 세상 사람들이 가져다 쓰고 우주안의 사람들이 감동하여 탄복하는 학문이다.

오늘을 선택하라

- 기는 변화한다. 변화하기 때문에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옛 성현들의 글은 그 시대, 그 장소의 기를 설명한 것이지 지금 이곳의 기를 설명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곳의 기, 즉 현실을 알고 그에 맞는 철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우주 만물은 氣다. 우주 만물인 기는 끊임없이 운동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이런 기의 운동을 ‘流行’이라 했다. 이미 밝혀진 기를 연구하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기를 추측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우주 만물의 기에 도달할 수 있다.

천하 만세의 학문

- 최한기는 實學(① 실제로 소용되는 학문. ②〔역〕 조선 중엽, 성리학의 관념을 벗어나 실생활의 유익을 목표로 한 학문. 실사구시(實事求是)와 이용후생(利用厚生) 및 경세치용(經世致用)에 관해 연구하였음.)이 “한 국가나 한 마을에 적용되는 학문”이라고 생각했다. 실학은 특정 지역이나 시대를 넘어서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없다. 그래서 최한기는 “세계 어디에서나 만세에 걸쳐 적용되는 학문”을 하자고 했다. 그것이 바로 氣學이다. 기학에도 오류는 있다. 그러나 기학은 실체가 있는 것을 근거로 하므로 오류를 알아내기도 쉽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도 가능하다.

- * 實事求是 : 사실에 토대를 두어 진리를 탐구하는 일.
- * 利用厚生 : 편리한 기구를 잘 사용하여 먹고 입는 것을 풍부하게 하며, 생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
- * 經世致用 : 학문은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는 유교의 한 주장.
-----• ~ 학파.

5부 다른 생각의 힘

22. 쓸모없음의 큰 쓰임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나인가

- 장자는 우리가 지금껏 참이라고 여겼던 규정에서 벗어나 다른 각도에서 사물을 보라고 이야기 한다.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

- 세상에 절대적 진리는 없다. 모든 진리는 특정의 조건 안에서 유효한 상대적 진리다. 장자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길 요구한다. 자기중심의 편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때 다툼이 생긴다. 우리는 항상 열려 있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마음은 닫혀 있다. 객관적 기준에 의거하여 관계를 규정하고 세상을 판단하지 않고 주관적 기준에 의거하여 관계를 규정하고 세상을 판단한다.

빌렌도르프의 비너스가 미인이라고?

- 옳고 그름이 모호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장자는 고정관념을 벗어나고 각자의 주관을 초월하자고 말한다. 그럼으로써 옳고 그름의 경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발상의 전환, 그리고 현대적 변용

- 사물이든 사회든 제도든 나와 마주한 대상이 모두 상대다. 그 상대를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생각이 뒤집힌다. 장자의 이야기는 우리의 뒤통수를 때린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시작하여 이야기를 이끌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전부로 안다. 그래서 갇힌다. 자신의 처지에 갇히고 자신의 생각에 갇힌다. 갇히면 밖을 볼 수 없다. 그래서 모르는 것인데도 모르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 나아가 모르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하고 만다. 장자가 지금의 우리에게 말한다. 틀을 깨라! 스스로 만든 자신의 한계를 넘어 한 단계 높은 세계로 나아가라!

23. 세상을 알면 괴롭지 않다 ----- 法句經

시로 쓴 이야기

- 고타마 싯다르타는 6년 동안 곡기조차 끊고 하루에 쌀 한 톨로 연명하면서 극도의 고행을 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그래서 고행을 포기하고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깊은 명상에 들어갔다. 명상에 잠긴 지 7일째 되는 날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음을 얻은 뒤 부처는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다니며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의 내용을 가르쳤다. 부처가 4년 동안 가르친 내용을 기록한 것이 불경이다.

- 초기에 간행된 불경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초기에 간행된 불경의 하나가 바로 <법구경>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 輪廻가 계속되는 한, 태어나지 않을 수 없고 태어나는 한, 괴로움이 계속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태어나지 않기 위해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解脫이다. 해탈이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 解脫 : ① 굴레나 얽매임에서 벗어남.

② 〔 불 〕 번뇌·속박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편안한 심경에 이름. 열반(涅槃).

-----• 욕망에서 ~하다.

- <법구경>에서 말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 가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지니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나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뒤따른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뒤따른다."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욕망(貪)', '성냄(瞋)', '어리석음(痴)'으로 인해 執着이 생긴다. 그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몸과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면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 <법구경>에서 다시 말한다. "욕망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올바르게 알고 마음을 온전히 해탈하여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청정한 삶이 결실을 얻는다."
-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진리가 아닌 것으로 자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평온하여 증오가 없고 두려움이 없다."
-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다. 따라서 실체를 가진 것도 없다. 일순간에 쓰임이 끝나면 사라지는 것들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 집착한다.
- 부처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실체가 있는 것 또한 없다는 사실을 알라고 한다. 그런 사실을 알면 집착을 끊을 수 있고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다. 세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 그것을 부처는 지혜라고 했다. 고타마 싯다르타가 깨달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듯이

- 흔히 부처의 가르침을 속세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부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했다. 부처는 현실의 삶을 소중히 여겼다. <법구경>은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가르친다. <법구경>에서 부처는 세상을

살아가는 세 가지 바른 길을 말했다. “말을 조심하고 마음을 절제하며 몸으로 악행을 짓지 마라. 이 세 가지의 길을 깨끗하게 하라.” 이 짧은 말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다 들어 있다. 우리는 말실수로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마음을 절제하지 못해 과소비도 하고 잘못된 행위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부처의 짧은 말은 수십, 수백 마디 말보다 더 큰 것을 담고 있다.

오늘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오늘의 생각은 내일의 삶을 만들어간다.
삶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면
괴로움이 뒤따른다.
수레의 바퀴가 소를 따르듯이.

오늘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오늘의 생각은 내일의 삶을 만들어간다.
삶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순수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면
기쁨이 뒤따른다.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듯이.

24. 단박에 깨달아 이타를 실천하라 ----- 지눌 <원돈성불론>

세상이 싫은 사람, 모두 모여라

- 지눌(知訥 1158~1210)은 <權修定慧結社文>에서 당시 불교계에 대해 일갈했다. 고려 전기, 불교계는 사상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권력도 마음껏 누렸다. 속세와 인연을 끊으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속세의 이익을 마음껏 누렸다. 귀족층과 결탁하여 방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많은 노비를 거느렸다. 승병까지 두어 권력을 과시하면서 재산을 지켰다. 불교 행사는 지나치게 호화스러워 많은 비용이 들었다. 그 비용은 백성들에 대한 수탈로 충당되었다. 그러면서도 불교는 백성들의 불만과 항거를 억누르는 역할을 했다. 1170년 무신난이 일어나자 상황이 달라졌다. 고려 전기 문벌 귀족들이 일거에 몰락하고, 문벌 귀족과 결탁했던 불교계의 세력들 역시 몰락했다. 이런 전환기에 불교계에서 개혁운동이 일어났다. 그 선봉장이 지눌이었다.
- 지눌은 結社를 하고자 했다. 또 하나의 절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단체를 만들자

고 했다. 이 단체는 각계각층에 문호를 활짝 개방했다. 지눌은 말했다. “도가나 유학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세상을 싫어하고 티끌과 같은 세상을 벗어나 세상 밖 높은 곳에서 마음을 닦는데 전념하고자 하는 하는 사람은 비록 지난날 서로 모였던 인연이 없더라도 결사문 뒤에 그 이름 쓰기를 허락한다.” 이 뜻에 동조하여 참여한 사람 중에 慧謙도 있었다. 혜심은 유학자였지만 지눌의 문하로 들어가 그 뒤를 이었다. 지눌은 새로운 불교 종파를 창설하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지눌의 뒤를 잇는 사람들에 의해 종파가 창설되었고, 오늘날에 이르러 불교계의 대표격인 조계종이 되었다.

결사를 결의하다

- 지눌은 말한다. “명예와 이익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산림에 은둔하여 마음을 집중하고 지혜를 갈고닦는 데 힘쓰자. 예불과 경 읽기를 하고 육체노동을 함께하자.
- 불교가 경전 연구에 집중하면 백성은 깨달음을 얻기 어렵다. 그래서 지눌은 진리를 깨친 모든 사람이 원래는 보통의 사람이 아니었느냐고 반문했다. 백성을 등한시하는 불교계에 대한 비판이었다.
- 글줄이나 읽을 줄 안다고 젠체하며 중생을 호도하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서 명예와 이익을 좇는다고 당대 승려들을 비판했다. 그런 승려들은 스스로 더러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더럽힌다. 그래서 지눌은 수행을 하자고 했다. 함께 모여 노동을 하고 참선과 경전 읽기를 하자고 했다.

단박에 깨쳐라

- 참다운 본성이 잠깐 사이에 생겨나면 비록 여러 가지의 욕망을 보고듣고, 그 욕망이 마음속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더럽히지 못한다. 한 순간에 진리를 깨칠 수 있고 나면 자유롭게 되어 온갖 고민과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은 털끝만큼도 차이가 없으니 중생이 그 마음을 단박에 깨치면 부처가 된다는 말이다.
- 頓悟漸修 : 단박에 깨닫고 끊임없이 수행한다.

깨쳤으면 이타를 실천하라

- 깨쳤으면 오랫동안 수행하여 온몸에 배어 있는 악습을 씻어내야 한다. 수행은 반드시 절에 들어 앉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눌은 일상생활 속의 활동, 사회적 실천을 강조했다. 利他行, 즉 다른 사람들을 위한 실천을 하라고 했다. 지눌이 말하는 漸修의 핵심은 바로 이타의 실천이었다.

천 가지 만 가지가 여기 있다.

- 지눌의 結社 운동은 귀족 중심의 불교를 백성의 불교로 전환하려던 일생에 걸친 노력이었다.
- 임종을 앞둔 지눌의 마지막 말이 전해온다. 지눌은 앞에 놓인 책상을 두 세 번 치며 "천 가지 만 가지가 모두 이 속에 있다."고 했다. 책상이 아니라 책상을 칠 때 나오는 소리 속에 모든 것이 들어 있다는 말이다. 진리는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이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 속에 있다는 뜻이다. 그 가르침은 백성들에게 전하는 복음이자 불교가 항상 백성과 함께해야 함을 일깨우는 계율이었다.

25. 용천검 드는 칼을 아니쓰고 무엇하리----- 최제우 <동경대전>

최제우, 득도하다

- 최제우의 글을 모아 1880년에 동학의 2대 교주인 최시형이 한 권의 책을 발간하였다. 그 책이 <東經大全>이다.

최제우의 호소

- 역사적 전환기에 백성들 속으로 파고드는 종교의 출현은 오래전부터 반복되어온 일이다. 새로운 종교는 백성의 열망을 담고 있어서 그 세력이 급속히 확대된다. 동학 역시 마찬가지였다. 동학은 민란이 반발하고 서양의 동양 침략이 노골화되던 전환기에 새로운 종교로 탄생했다.

왜 동학인가

- 최제우는 동쪽에 있는 조선 땅에서 도를 받았으므로 이름을 동학이라 했다. 최제우가 서학에 맞서 동학을 창설한 것은 민족적 각성의 반영이었다.

5만 년 만에 기회가 왔다

- 1789년 프랑스 대혁명에는 장 자크 루소가 있었듯이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는 최제우가 있었다.

26. 실천해야 얹이 있다 ----- 마오쩌둥 <실천론>

중국을 알려면 마오쩌둥의 사상을 알아

- 마오쩌둥의 사상은 여전히 중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마오쩌둥의 사상에 대한 이해 없이는 중국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기대하기 어렵다. 마오쩌둥의 사상을 대표하는 책이 <실천론>이다. 1937년 7월에 쓰인 <실천론>은 분량도 적고 내용도 평이하다.

중국식 마르크스주의

- 마오쩌둥은 마르크스와 레닌의 글을 뒤적이며 문구나 되새기는 교조적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었다. 당시 공산당 지도부가 그러했다. 처음에는 학자들이, 그다음에는 소련에서 판견된 인사들이 지도부가 되면서 교조적인 이론으로 공산당을 지도했다. 그들은 도시 노동자 중심의 봉기를 통한 혁명을 추구했다. 그러나 그들의 노선이 실패로 끝나면서 수많은 공산당원을 잃고 말았다. 마오쩌둥은 농촌 출신으로 중국에서 농민들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중국 인구의 90퍼센트 이상이 농민이었고 억압과 수탈을 가장 심하게 받던 층도 농민이었다. 농민을 장악하지 않고는 중국 혁명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농촌으로 들어가 농촌 해방구를 만들었고, 농민들을 모아 공산당의 군대인 홍군을 조직하여 게릴라전을 벌였다. 마오쩌둥은 마르크스주의를 중국의 현실에 적용하는 '중국식 마르크스주의'를 추구했다.

배는 먹어봐야 맛을 안다

- <실천론>의 부제는 '인식과 실천의 관계, 知와 行의 관계에 대하여'다. 인식과 실천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올바르게 인식해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다. 그리고 실천을 해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
- 마오쩌둥은 마르크스주의 인식론을 '지행통일관'이라고 규정했다. 마오쩌둥은 중국의 현실과 전통을 잊지 않는 마르크스주의자였다.
- 마오쩌둥은 인간의 인식이 감성적 인식의 단계에서 이성적 인식의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고 말하곤 했다. 이것이 중요하다. 감성적 단계에 머물면 경험한 것 밖에 알 수 없다. 이 단계에 머무르면 중국의 농민은 삶이 고달프다는 경험적 인식밖에 하지 못한다. 이성적 인식의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 이 단계에 이르면 중국의 농민은 자신의 삶이 왜 고달픈지를 알게 되고, 고달픈 삶을 끝내기 위해 혁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경험과 이론, 인식과 실천은 분리되지 않는다. 경험이 없으면 현실

을 알지 못하고, 이론이 없으면 그 현실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지’와 ‘행’이 통일 된다고 했는 데 이것이 마오쩌둥 사상의 핵심이다.